

연매출 45조 바라보는 국내 배터리 3사... 中굴기 맞선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 속 지난해 보다 30% 이상 매출 증가 하반기 고객사 완성차 업체들 전기가 신차 출시로 수요 확대 예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 가운데서도 연매출 약 45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과의 글로벌 시장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4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약 34조4000억원 대비 약 30.8% 이상 매출이 증가한 수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매출 목표를 기존 19조2000억원에서 22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연매출 17조9000억원 대비로는 4조원 이상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반기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 GM과의 합작법인 1기 가동, 거래선 수요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평가 변동 효과 등에 따라 하반기에만 12조6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SDI는 상반기에만 8조8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세를 기록, 연매출은 지난해 13조5000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온도 올 상반기 2조5000억원 매출

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7조원대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지역 봉쇄, 글로벌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 등 악재를 겪은 가운데서도 신규 공장 가동과 판매단가 상승으로 외형 성장을 이룬 결과다.

3사가 올 하반기 신규 가동하는 공장 규모는 63G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에 GM과의 합작 1공장(35GWh)을 올해 3분기 가동할 예정이며 삼성SDI도 24GWh 규모의 헝가리 2공장 가동에 들어간다. SK온도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미국 조지아 공장과 올해 가동될 헝가리 2공장이 각각 10GWh 규모 생산능력을 더했다.

특히 하반기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가 신차 출시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꾸준한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은 2020년 140만대에서 2025년 570만대, 2030년 1330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LG에너지솔루션 오장정 연구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품

고객사인 현대차, GM 등도 하반기 아이오닉6, 갤러리아 리퍼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약 9%포인트(p) 하락해 날로 치열해질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

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203.4GWh로 전년 동기 대비 76.8% 상승했으며 국내 3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9%에서 25.8%로 9.1%p 하락했다.

반면 CATL을 비롯한 중국계 기업들은 올해 세제지원의 배터리 사용량 증가율을 보이며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세계 1위인 CATL의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6.2%p 늘어난 34.8%, 3위인 BYD는 같은

기간 5.0%p 늘어난 11.8%p를 각각 기록했다.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29.2GWh로 2위, SK온은 2.1배 급증한 13.2GWh, 삼성SDI는 50.6% 늘어난 10.0GWh를 기록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음에도 중국 업체의 급성장에 전체 시장 점유율은 줄어든 것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그간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원료로 하는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던 것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리튬이온전(LFP) 배터리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태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는 배터리 양극재 가운데 니켈, 코발트를 빼고 리튬, 망간 합금을 넣은 하이망간 배터리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이망간 배터리는 원료 중 가격이 비싼 코발트를 줄임으로써 LFP 배터리보다는 비싸지만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제품 출시 목표 시장을 2024년으로 잡았으며 다른 기업들의 상용화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정부가 보조금 상한을 폐지해 전기차에 대

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부분은 3사에 호재다. 미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이른바 이달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간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20만대까지만 제공하던 보조금 제한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원자재(리튬, 니켈 등) 비중이 4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되며 2027년 80%로 기준이 강화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소재) 비중이 50% 이상(2024년)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지급되며 2029년 이 비중을 100%로 올린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중국 CATL과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건을 만족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원광물 70% 이상 중국에서 채굴하고 있어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위점으로 지적된다. 중국 리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용구 기자 jkg891@sportsbiz.co.kr

7월 APT 공급실적 '28일 50%→29일 70%'... 하루만에 무슨 일이?

15개 단지, 약 8000가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 불확실성 해소돼..." 갈수록 시장 침체 예상 더 무너지 말자는 분위기

7월 내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곳 중 10곳이 넘는 단지가 지난달 29일 대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하루만에 전국 아파트 공급 실적들이 크게 상승했다.

공급 실적들이란 분양이 예정된 단지를 제조사했을 때 실제로 그 달에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월말에 집계해 그 다음 달초에 발표한다. 4월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전체 3만9655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3만403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 28일까지 실제로 공급된 단지는 총 1만9740가구로 공급실적률은 약 50%에 불과했다. 일반분양 물량 공급실적률은 46%였다.

그런데 29일 15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총 물량으로 7979가구다.

이로 인해 7월엔 2만7719가구가 공급됐다. 7월 공급실적률은 하루만에 50%에서 70%로 20%p 상승했다. 일반분양 물량 공급실적률도 66%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유보라전안동주택 556

가구 ▲어수한국아파트엘프라하 186가구 ▲별리브타운 258가구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1단지 659가구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2단지 690가구 ▲힐스테이트마크로엔 951가구 ▲창원자이시그니처 786가구 ▲남중동쌍문로 2-1b1 1063가구 ▲e편한세상평택하이센트(4b) 916가구 ▲남중동우그린테뉴퍼스트 298가구 ▲서면4차분여름가을겨울 607가구 ▲선운다르비레브리 128가구 등이다.

자료를 집제한 직방 관계자는 "7월 28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29일 많은 수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당초 7월 29일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날 이례적으로 많은 공급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주차 모집공고는 청약 일정을 고려해 보통 금요일에 낸다"면서 "이부 요인도 있지만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청약 시장은 공약과 정책 예고 혹은 발표로 불확실성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도 규제가 안화될까, 시장이 나아질까 주반 팔기며 두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달 15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불확실한 부분이 사라져 계획대로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당첨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하남시 학동동 위례로1로 171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천3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연합뉴스

그는 "거기다가 청약 시장이 2분기부터 급속도로 열리면서 더 늦게 분양하면 미분양이 쌓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예정된 물량은 일정대로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용근 myk_1627@sportsbiz.co.kr

NH 농협 **농협농업**

마음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분께

비타민이 풍부한 농산물과 과일로 만든 HACCP 인증의 농협농업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농협농업농조합 임직원 일동

농협농업농조합 임직원 일동

농협농업농조합 임직원 일동

송악농협 氣 찬 흑염소진액

국내산 흑염소 추출액 86%

자연에서 키운 흑염소와 누우에게나 잘 어울리는 전통 원료를 배합해 48시간 이상 장 시간 농축한 진액으로 맛과 영양이 진하고 담백합니다.

전통한방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지방분해 토종 흑염소의 생동감이 그대로! 구수한 맛이 더욱 진하고 담백합니다. 산기슭을 뛰놀던 흑염소는 흑염소 86%와 10여가지 전통 한방재료로 최고의 레시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흑염소'의 좋은 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는 약해진 몸에 활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로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입니다. 송악농협기찬 흑염소진액'은 몸에 좋은 신이초와 풀, 나무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먹고 자란 흑염소로 만듭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자란 흑염소는 좋은 성분이 가득하고 특히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을 보해주는 한편, 지방은 적어 소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건강할 때 체온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을 걸러냈기 때문에 특유의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끝맛이 깔끔하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입맛이 까다롭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잘 마실 수 있습니다.

www.디드림365.com 구입문의 **1800-6639**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이벤트

60 ANNIVERSARY

% 할인행사

오늘부터 선착순 300분께 드립니다

2박스(2개월분) 160,000원 59,800원

* 송악농협의 신뢰가 바로 제품의 신뢰입니다!

2세트(4개월분) 구입시 1박스(1개월분)를 더 드립니다!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참 좋습니다!

- 많은 영양소가 풍부한 흑염소는 우리몸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100% 국내산 흑염소로 활력있는 생활을 하세요
- 사계절의 보양식으로 적극 권해드립니다.

농협 : 301-0236-7453-61 예금주: (주)디드림소평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택배비 4,000원 소비자 부담*